

광양항 입·출항로 사고위험 높다

수심 얕은 구간 많고 병목현상 심각 … 준설 서둘러야

광양항 항로가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같은 대형 선박 충돌 사고 등 각 종 해양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전남 도에 따르면 여수항만청 조사 결과 광양항 중앙 부근 해역은 VLCC(초 대형 원유 운반선, 원유 선적 무게 18 만t~30만t)의 통항이 장애가 되는 저수심 구간이 상당 부분 있어 준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광양 항로를 통해 수심 6~9m에 불과한 저수심 해역이 있어 선박이 드나들 때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묘도 수도(제2항로)의 항로는 심한

제 및 통신 등 운항과 관련한 5개 분야에서 15건의 해상 교통 위험요소를 찾아내 정부에 개선 건의했다.

조사 결과, 광양항 항로 중심부 수심이 21m에 밖에 되지 않는 저수심 구간이 많아 수심 23m까지 준설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양항 LNG 부두 양 끝단에도 수심 6~9m에 불과한 저수심 해역이 있어 선박이 드나들 때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묘도 수도(제2항로)의 항로는 심한 굴곡은 물론 항로폭이 150m로 기준

박과 항로 횡단선박 간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교행선박 간 안전 운항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또 광양항 입출항로 항로 입구 표시를 위한 등부표가 너무 작아 선박들이 식별하는 데 곤란한 점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저수심 지역에 대한 준설과 장애물로 인해 줄어든 항로폭 확장, 해상 통신 난청구간 해소 등 광양항 운항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조군도와 횡간수도, 금오수도 등의 해역은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지정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선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영산강 뱃길 복원 서명 운동 돌입

새물결 국민운동 지역본부

지역 시민단체가 영산강 뱃길복원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사단법인 새물결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15일부터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 및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영산강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죄악에 가까운 일”이라며 “뱃길복원 사업은 하천 준설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 뱃길을 복원하면서

깨끗해진 영산강을 활용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영산강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또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와는 별개로, 박준영 전남지사의 공약 사업”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성진 새물결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장은 “영산강 뱃길복원은 전남도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며 “도민들의 업원을 전달하기 위해 20 만명 서명을 받은 뒤 범 도민적 복원 사업 촉구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기자 dok2000@

“보존 vs 철거” … 옛 도청 별관 해법 찾나

보존 공대위, 내일 유인촌 문광부장관 면담

‘도청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관과의 면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이 해법을 찾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축진단(이하 주진단)과 공대위에 따르면 16일 문광부는 유장관과 정수만 공대위 공동 상임대표, 윤광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월 24일부터 옛도청에서 별관철거 동상을 벌이고 있는 공대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면담에서 별관철거

반대투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5·18 광주항쟁 유적지인 별관의 보존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광부는 별관 철거에 대한 기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뚜렷한 해법이 도출될지는 의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일단 공대위는 이날 문광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주진단과 옛 도청 별관 철거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주진단과 공대위는 9월 중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로 무산됐다. /윤영기자 penfoot@

光日만평

- 김종우



침튀는것 막기에는 더 없이 좋다

“가혹행위 자살 군인도 국가 유공자”

행정심판위, 인정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최근 군의 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며 군내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행심위는 최근 경비교도대원으로 군 복무 중이던 1996년 10월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정훈(당시 20세) 이교의 유

족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재결문에서 “고인의 사망은 선임대원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등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돼 정신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소정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심각

최근 3년 서남해안 일원 2만3,628건 적발

전남 서남해안 일원에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운환 의원이 1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는 2005년부터 8월 말까지 3만2천788건에 835억5천786드럼(1천97억원 규모)에 달했다.

유종별로는 경유 78만 드럼(1천10억원), 휘발유 2만8천900드럼(71억원), 범кер유 2만6천13드럼(15억원)

은 기간 면세유를 부정유통시킨다. 적발된 수협직원은 42명이나 돼 수협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올해 전남지역 모 수협에서는 면세유 취급 대행주소 사장과 면세유 담당직원 등이 공모, 보관 중인 어업용 면세유 31만 리터(4억6천500만원)를 부정 유통하였다가 적발됐다.

윤 의원은 “면세유 부정 유통행위가 이어지는 것은 면세유 가격이 시중 기름값의 절반에 불과해 조업량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어민들이 부정 유통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무원 채용 연령 상한 없앤다

내년부터 … 행시·7급 20세, 9급 18세 하한은 유지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정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5급 시험의 행정고 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 고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시험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이 해소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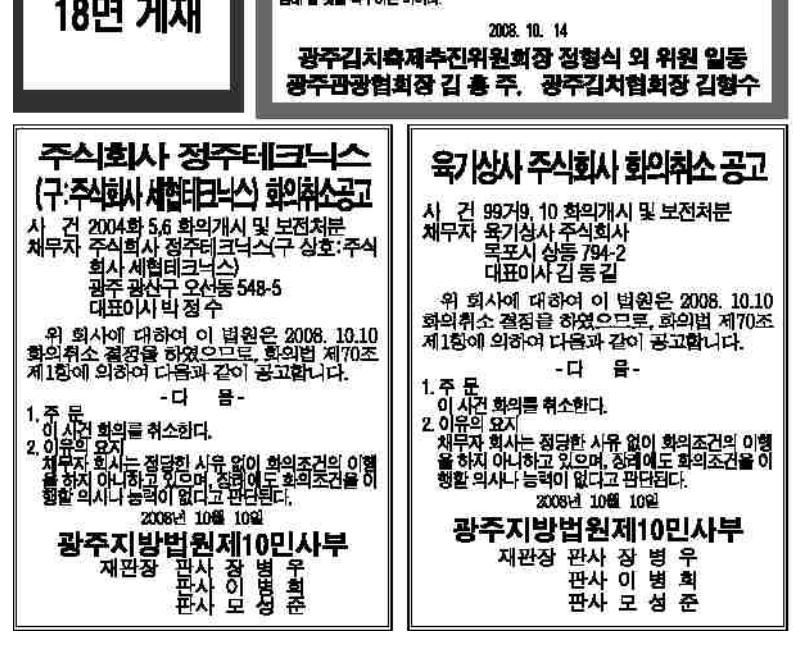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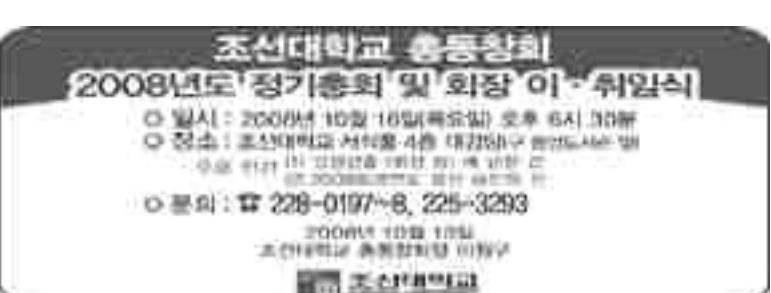
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지난 5월 확정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제1, 2 중장급 정부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5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53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 오늘의 국감

▲ 법제사법위원회=장흥교도소 시찰(오전 10시·장흥교도소)



분묘개장 공고(1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92호(2005.12.07)에 의거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해남 해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분묘의 소재지	지 번	기 수
해남군 해남읍 해리	211-3 전, 211-5 전, 212-1 단, 산41-5 일, 산41-6 일, 산41-7 일, 산41-8 일	8기

* 상기 지번 외 해남해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공고기간 : 2008. 10. 15 ~ 2008. 12. 15 (3개월)

3. 개장시유, 개장 후 인치장소 및 기간

- 가. 장 사 유 : 해남해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편입
- 나. 개장 후 인치장소 : 보현정사(목포시 용해동107-5)
- 다. 안 치 기 간 : 2009 ~ 2019 (10년간)

4. 공설모지 또는 사설모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가. 성 명 : 보현정사
- 나. 주 소 : 목포시 용해동107-5번지
- 다. 연 락 방 법 : ☎ 061)276-1730

5. 신고처 : -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택지보상판매팀 (☎062-380-0502) - 해남군 해남읍사무소

6.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신고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지번의 사업지구 편입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공고기간 중 신고가 되지 않은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수완지구

◎ 아파트 분양권 전문 ◎ 택지 및 상업지역 토지

【 토지증정 】

▶ 수완지구 택지 및 상업지역 최대 물량 확보

【 아파트 증정 】(신속처리)

▶ 우미, 모아, 현진, 코아등, 대주 등 분양권 물량 확보

【 공장 】

▶ 전남 함평군 나전면 국도점

대지(공장지) : 1030 전용 : 320평

용지2층 실내면적 1억5000만원

【 수완지구 송월빌딩 임대 11월준공 】

▶ 1층 12평~40평 3.3㎡ 당 1500만원

▶ 부동산 판매시설 2층~5층 각 42평 용도: 병원, 학원, 독서실, 당구장 등(분할가능) 3.3㎡당 250만원 부터~